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출산 연령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유 순

2023년 8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출산연령 조절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양 유 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양유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정환 

위 원 최보영 

위 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국문초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출산 연령 조절효과

양 유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현재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개인주의,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령출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를 반영하여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 소재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산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여 30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업체를 통해 2023. 03. 22-04. 05(15일)까지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첫 출산 연령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가족의 도움과 함께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출산 어머니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원정책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능성, 고령 출산

# 목 차

|   |    |
|---|----|
| <b>I. 서론</b>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문제 및 가설 .....                        | 7  |
| 3. 연구모형 .....                             | 8  |
| 4. 용어의 정의 .....                           | 9  |
| <b>II. 이론적 배경</b> .....                   | 11 |
| 1. 고령출산 .....                             | 11 |
| 가. 고령출산의 개념 .....                         | 11 |
| 나. 국내 출산 연령 현황 .....                      | 12 |
| 다. 제주도 출산현황 .....                         | 16 |
|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                     | 18 |
| 가.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                      | 18 |
| 나.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                    | 21 |
|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                      | 26 |
|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 .....                  | 26 |
| 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 .....                    | 29 |
| 4. 변인 간 영향 관계 및 조절효과 .....                | 32 |
| 가.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 32 |
| 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 | 35 |
| <b>III. 연구방법</b> .....                    | 39 |
| 1. 연구대상 및 절차 .....                        | 39 |
| 2. 측정도구 .....                             | 41 |

|  |           |
|--|-----------|
| 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                     | 41        |
|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 .....                      | 41        |
| 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 척도 .....                       | 42        |
| 3. 자료처리 및 분석 .....                           | 42        |
|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 <b>44</b> |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 44        |
| 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                        | 44        |
|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                         | 45        |
| 2. 상관관계분석 .....                              | 47        |
| 3.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 48        |
| 4.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 | 49        |
| <b>V. 논의 및 결론 .....</b>                      | <b>54</b> |
| 1. 논의 및 결론 .....                             | 54        |
| 2. 제언 .....                                  | 56        |
| <b>참고문헌 .....</b>                            | <b>58</b> |
| <b>부록 .....</b>                              | <b>75</b> |
| <b>Abstract .....</b>                        | <b>81</b> |

## 표 목 차

|   |    |
|---|----|
| 표 II-1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 14 |
| 표 II-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 .....        | 15 |
| 표 II-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아동현황 2023년 3월 기준 .....        | 17 |
| 표 II-4 양육 스트레스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                | 25 |
| 표 II-5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                     | 31 |
| 표 III-1 인구통계학적 특성 .....                           | 40 |
| 표 III-2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 41 |
| 표 III-3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              | 42 |
| 표 IV-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기술통계 .....                 | 44 |
| 표 IV-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령별 기술통계 .....                | 45 |
| 표 IV-2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기술통계 .....                  | 46 |
| 표 IV-2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연령별 기술통계 .....                 | 46 |
| 표 IV-3 상관관계분석 .....                               | 47 |
| 표 IV-4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 49 |
| 표 IV-5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  | 51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1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 영향에서 첫 출산 연령 조절모형 ...   | 9  |
| 그림 II-1 국내 출산율 변화 .....                         | 13 |
| 그림 II-2 국내 인구이동 현황 .....                        | 18 |
| 그림 III-1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첫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 | 53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현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독립성 확보에 따른 비혼으로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많은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확산,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 적령기 지연에 따라 자녀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과 관습을 이해하게 된다(Katz & McClellan; 유경훈, 정미애, 2022). 그리고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과 함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능력 다양성을 요구하고(김진영, 2023),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은 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홍혜진, 김경숙, 2020).

또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관계를 유능하게 맺는 능력을 배우고 형성하는 것은 발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송민영, 2018).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며, 이는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준과 조건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과 행동 및 정서를 사회적인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행동적·정서적 능력을 포함한다(Hebert-Myeres et al., 2006).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자신을 사회 구성원임으로 인식하고, 부모와 또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이다(김수아, 2021; Lam et al., 2018). 또한 유아가 자신의 정서·행동 조절 능력,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인지적·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Hubbard & Coie, 1994; Raver & Zigler, 1997; Rose-Krasnor, 1997).

이외에도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으로 사회적 적응 달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력(Lim, 2019)을 말한다. 그리고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원만한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며, 올바른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현주, 2018; Mendez et al., 2002; Odom et al., 2008).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누적되면서 발달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최윤희, 문혁준, 2018),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원만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또래 관계 및 교육기관의 적응을 비롯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홍혜진, 김경숙, 2020). 따라서 유아기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정영미, 2021; Raver & Ziegler, 1997)로,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성공적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윤지민, 2021; Denham, 2006).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들은 대체로 좋은 기분 유지, 또래와 긍정적 관계 형성,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유머 이해하는 능력, 적절한 권리와 요구 주장,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시 및 다른 유아, 성인과 적절한 협상·타협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McClellan & Katz, 2001).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유아는 다른 사람과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며 삶에 만족도를 보인다(Kostelnik et al., 2009). 또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이며, 사회성 발달은 물론 정서발달과 인지 발달 역시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Arnold et al., 2012; McClelland & Morrison, 2003).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며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Woo, 2013)이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정서 및 인지 발달과 연관성이 높고, 유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이혜수, 서주현, 2021; Denham, 2006; Raver & Ziegler, 1997). 그리고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Shim & Lim, 2018)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를 확인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 상호작용(송민영, 2018),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변인(임현주, 2018), 양육 스트레스, 가족건강성(홍혜진, 김경숙, 2020),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박남심 외, 2020), 부모의 부부갈등, 가족 상호작용(성영실, 이성주, 2021), 양육 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조효숙 외, 2021), 부모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정영미, 2022),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대감(홍예지, 2022), 유아의 정서성, 양육 참여, 양육효능감(배영은, 심미경, 2022), 유아의 기질, 실행기능(최윤정, 차미숙, 2022), 사회적 지지, 가족상호작용, 양육 스트레스(서현선, 2023) 등 연구가 진행되었고, 공통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상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최신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 자녀가 최초로 밀접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김완식, 강영신, 2013). 그리고 가정은 자녀가 협력성, 책임성과도 같은 사회적 유능성 형성에 일차적 장소로, 부모 모두는 자녀가 적절한 사회관계를 맺도록 하는 능력인 사회성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송민영, 2018). 즉 유아는 생애 초기에 어머니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육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신장시키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 역할에 대해 많은 혼란과 부담감(황지에 외, 2016)을 느끼고 있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처음 양육하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은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김보미, 김경철, 202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발달 및 행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나 어려움, 부담감 등을 의미한다(Abidin, 1990).

대체로 어머니들은 직장 업무, 가족 돌봄, 자녀 양육 등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

는 경우가 많고(유계숙 외, 2020), 한국 사회에서 공동양육이 늘고 있고, 취업모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대부분이다(오가영, 한지현, 2019). 즉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왔지만, 현대의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외에도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신수정, 문리학, 2020).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김동선, 문혁준, 2022), 자녀의 사회적 발달이나 유능성에 부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유아 발달 및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강보미, 김경철, 2023). 즉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가 영유아기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최은아, 정계숙, 2015)이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독립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부(-)적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박남심 외, 2020; 서현선, 2023; 송민영, 2018; 정영미, 2022; 최우수, 성영실, 2021; 홍예지, 2022; 홍혜진, 김경숙, 2020).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박성매, 2019). 그리고 김동선, 문혁준(2022)은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삶에서 제거가 불가능 하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여 양육 스트레스 완화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는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분담은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해 일-가정 양립에 따른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여성가족부, 2022).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5~49세 기혼여성 959명 중 30%(288명)만이

‘계획대로 아이 출산’으로 조사되었고, ‘2년 내 출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671명 중에서 37.9%(254명)는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이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늦은 연령 등으로 조사되었다.

출산 연령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을 고령 출산으로 정의(문선영, 2018)하였고, 이에 이 연구에서도 고령 출산을 만 3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늦부모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된다. 통계청(202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 35%, 22년 35.7%(잠정치)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톱뉴스, 2023). 즉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것이 원인(Burkimsher, 2015; Simoni et al, 2017)이며, 심리적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도 첫 출산 연령이 지연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첫 출산 연령 지연에 따라 비교적 고령 나이에 출산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에 따른 곤란함이나 부담감을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oplan et al., 2003). 즉 여성은 출산과 함께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영아를 위한 수유, 배변, 수면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돌봄 요구가 가장 큰 시기인 영아기에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첫 자녀인 경우 어머니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박세롬, 박혜준, 2016). 특히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누적되어 부모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주세은, 2010).

그리고 고령 출산은 여성들에게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를 가져오는데, 고령 출산으로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어머니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차삼숙, 2005). 그리고 고령 출산모의 경우 신체적으로 일반 출산모에 비해 회복이 더디므로 출산 후유증을 더 심하게 경험하기도 한다(박희진, 2006). 특히 고령의 어머니들은 비교적 나이가 적은 부모들보다 자녀의 친구 부모들과의 관계 맺음, 미래에 대한 준비, 신체적 조건에 대한 활력소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김용미, 2005; 박경순, 2012; 이민자, 2009).

국내 고령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늦부모됨에 대한 탐색적 고찰(김용미, 2005), 고령 출산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주세은, 2010), 고령 출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 분석(최혜원, 2013), 늦둥이 어머니의 육아 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문선영, 2018)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고령 출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늦부모와 일반부모의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 비교연구에서 늦부모는 일반부모보다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자, 김용미, 2007).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새롬, 박혜준, 2016) 등이 확인되었다.

어머니 출산 연령 관련 선행연구로 일반 출산모에 비해 고령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Roosa, 1988; 이민자, 2009)가 있으나, 반대로 고령 출산모는 일반 부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김기현, 2000; 편은숙, 2004)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아이가 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양하게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강보미, 김경철, 2023; 이미영, 2019). 또한 고령 출산모의 연령이 만41세~43세, 만44세~46세 집단이 만47세 이상 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주세은, 2010). 이외에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있지만,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미예, 2018).

이에 어머니의 특성 변인 중 출산 연령은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고령 출산 어머니가 계속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출산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다수 확인되었으나,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관한 연구는 이미 10년 이상 경과 하였고, 제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확인되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점차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인을 포함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목적에 적합하고 탐색할 수 있는(이예진, 운수정, 2018)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향후 고령 출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국내 저출산 문제와 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제주도 내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 간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가?  
가설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이 연구는 아래 연구모형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조절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질적 또는 양적변인이다(Baron & Kenny, 1986; 고길곤, 2021). 그리고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련성의 크기나 방향이 변화되는 경우에 조절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연구방법에 있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약하거나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조절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이 가능하다(Baron & Kenny, 1986; 서영석, 2010).

또한, 조절변인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이론을 토대로 조절변인을 선정해야한다(Jaccard et al., 1990). 그리고 통계적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을 실시하여 효과크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G\*Power 3.1 프로그램의 F tests 통계검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Faul et al., 200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와 검증력 .95을 설정하여 표본수 89개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300명의 표본수를 확보하였기에 조절변인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조절효과의 검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제3의 변인의 값 또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연속형 변인이나, 조절변인은 집단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인과 연속형 변인 모두 가능하다(유성모, 2015).

이 연구에서는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연령에 따른 선행연구가 현재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시대적 요청,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첫 자녀 출산 연령을 일반출산(35세 미만), 고령출산(35세 이상)으로 두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형태의 조절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조절변수인 첫 출산 연령을 조절변수가 가능한 수준인 값은 0과 1를 갖는 더미변수의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출산 연령을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I-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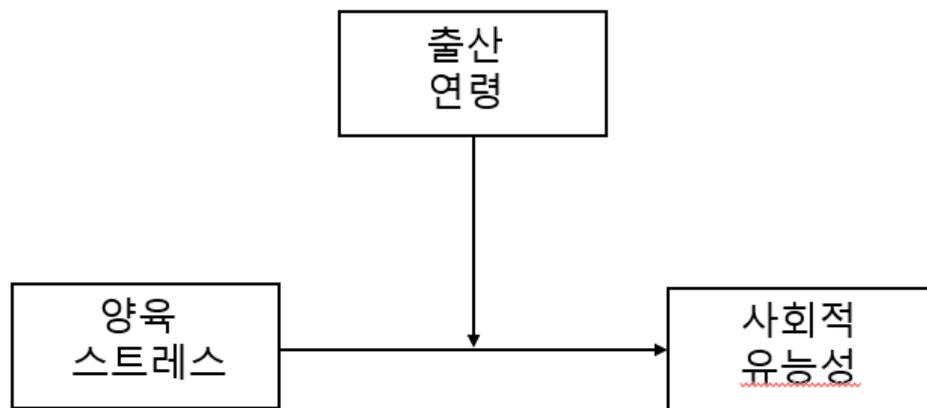


그림 I-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영향에서 출산 첫 연령의 조절모형

#### 4. 용어의 정의

##### 가. 출산 연령

출산 연령이란 어머니가 자녀를 처음 출산한 연령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 출산 모의 연령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이 연구에서는 출산 연령에 따라 고령출산과 일반출산으로 분류하였다. 즉 첫 출산 연령의 기준은 국제산부인과학회(1958)에서 35세 이상 임신부를 고령출산이라고 분류한 것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 출산 연령 기준으로 고령출산(35세 이상), 일반출산(35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 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일들에 대해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송정미, 202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역할부담감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의 축약형을 변안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 축약형)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12문항,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타인과의 관계유지능력, 사회적 기술, 정서적 및 인지적 영역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이혜원, 200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현심(1994)이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Scale-Kindergarten)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적응성(11문항), 인기도/지도력(8문항), 사회적 참여(5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고령 출산

#### 가. 고령 출산의 개념

현재 국내에서 고령 출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Grime와 Gross(1987)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3가지로 분류하여 30세, 35세, 40세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설정하였다.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bstetrics and Gynecologis)에서 정의한 고령 출산의 개념은 임신부가 첫 생존 가능 유아를 만 35세 이상일 때 출산한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즉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 고령 출산의 기준을 제시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는 출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일 경우 고령 출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모의 나이가 40세 이상일 때는 고위험 산모로 분류하고 있다(조수진, 2017).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35세 이상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령 출산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를 인용하며,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32~33세 정도까지도 주의할 대상으로 보는 의사들도 있다(강희경, 1994). 그리고 국내의 의학적 선행연구에서도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고령 출산모로 정의하고 있다(박희진, 2006; 하중규, 2007; 황지영, 2003).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산과 초산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고령 출산모 혹은 늦둥이 부모라 정의하였다(강희경, 1993; 임은정, 2001; 조혜주, 2003). 또한 김용미(2002)는 늦둥이 부모에 관한 문헌고찰(2002)과 탐색적 고찰 연구(2005)에서 부모 모두가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늦둥이 부모(늦부모)라 정의하였다. 이민자와 김용미(2007)의 연구에서도 늦부모를 부모 모두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늦부모에 대해 정의한 국외 학자들의 견해들도 산모의 연령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Reece(1993)는 35세 이후로 출산을 늦춘 여성들을 늦출산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Yarrow(1991)는 만 35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늦부모라고 분류하였다. 그리고 Frankel과 Wise(1982)는 33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집단을 늦부모 집단이라고 하였고, Cowan과 Cowan(1992)은 30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늦부모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민자, 2008).

지금까지 세계 산부인과 학회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서 제시한 고령 출산모의 연령과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비롯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령 출산모의 나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 고령 출산 어머니란 어머니가 만 35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 나. 국내 출산 연령 현황

최근 국내외 통계자료와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보다 여성들의 출산 나이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관, 자녀관을 비롯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의 선택으로 결정되면서 사회구조가 급변하게 되었다. 특히, 일과 가사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아가치관의 갈등과 자녀 양육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저출산의 문제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현상이며,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의 증가 원인과 직결된다(김태홍 외, 2011).

고령 임신은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Council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bstetrics and Gynecology)에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통계청(2023)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연령은 2005년 30세에서 2015년 32.2세, 2022년 33.5세로, 전년 대비 출산 연령이 0.2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34~35세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것이며, 이런 현상은 과거 유럽에서도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한국일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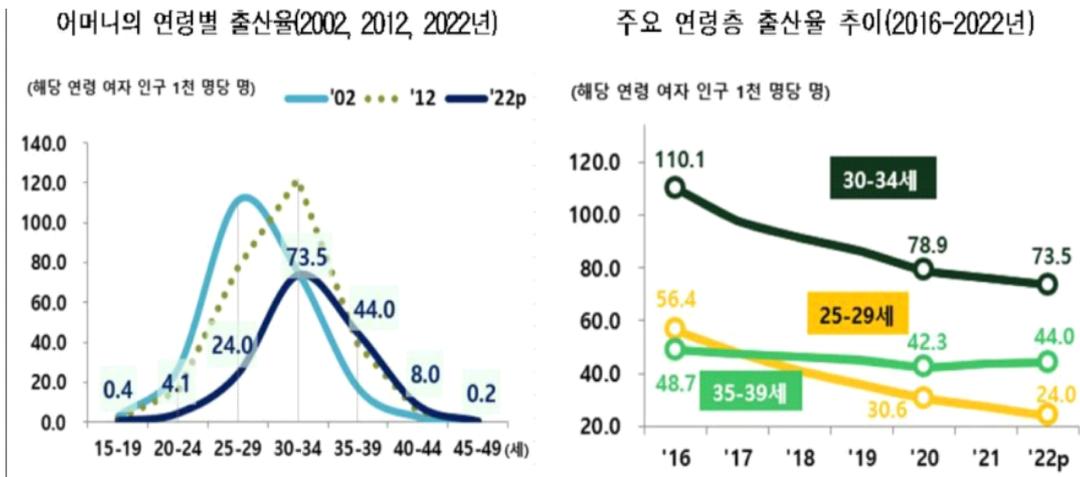


그림 II-1 국내 출산율 변화

자료: 통계청(2023). 출산율 증가율 변화.

통계청(2023)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일보, 2023).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과거 유럽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면서 출산율이 줄었다가 늦게 아이를 낳으면서 2000년대 초반 다시 회복되었다. 즉, 유럽의 경우는 여성들이 가임기가 끝나기 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혼 문제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먼저라는 인식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런 ‘출산율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23).

통계청(2023)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의 원인은 ‘20대 임신부’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3.5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은 44.0명, 20대 후반(25~29세)은 24.0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여성들의 출산 시기는 점점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30대 후반 연령층

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0.5명 증가했지만, 20대 후반 연령층은 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 초반의 경우 5.4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40대 초반(40~45세) 출산율은 지난해 7.6명에서 8.0명으로 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5세로 전년 대비 0.1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나타났고, 이는 동년 대비 0.4세 상승한 결과이다. 첫째 아이는 전년도보다 8000명(5.5%)이 늘어났지만, 둘째 아이는 1만5000명(16.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40대 초반 출생아의 수는 1만5700명으로 전년(14만7000명)보다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도 유럽처럼 ‘출산율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한국일보, 2023).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국내 저출산의 문제는 비혼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2022)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성인 이행기 청년들(18~34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결혼을 해야 한다(%)  | 56.0 | 53.9 | 42.9 | 45.8 | 42.0 | 39.1 |
| 자녀를 가져야 한다(%) | 54.0 | 54.1 | 44   | 46.1 | 41.8 | 37.2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연령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 역시 급속도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의 필요성은 2016년 56.0%, 2019년 45.8%, 2021년 39.1%로 불과 5년 사이 16.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산에 대한 필요성은 2016년 54.0%,

2019년 46.1%, 2021년 37.2%로 16.8%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미래 출산을 담당하는 청년들이 부정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면서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비혼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둘째 아이 출산율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2)

| 조사항목         | 조사 결과   | 합의                                |
|--------------|---|-----------------------------------|
| 결혼 의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 남성의 65.7%, 미혼 여성의 47.3%가 결혼 희망</li> <li>○ 연애 중인 경우로 한정하면 남성 74.3%, 여성 66.2%로 증가</li> </ul>  | 희망/이상과 실제가 다른 상황                  |
| 이상자녀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2.09명</li> </ul>  |                                   |
| 결혼 적령기 (규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결혼 적령기에 대한 외부 규범성이 있다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88.4%, 여성 95.5%</li> </ul> </li> <li>- 외부적으로 정해진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령기를 넘긴 여성의 결혼 의향은 적령기 전보다 낮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4.7 → 48.4%, 약16%p 하락</li> </ul> </li> <li>○ 스스로 정한 결혼적령기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58.5%, 여성 48.1%</li> </ul> </li> <li>- 스스로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의향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70.5 → 80.7%, 여성 43.1 → 56.3%</li> </ul> </li> </ul> |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큼 |
| 결혼 독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족·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각에 변화 없다(61.0%) &gt; 더 하기 싫어졌다(26.6%) &gt;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12.3%) 순</li> </ul> </li> </ul>  |                                   |

자료 : KDI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실(202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

\* 24-49세 미혼 834명(男 458명, 女 376명) 대상 조사('2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는 현재 청년 세대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이므로, 청년 및 저

출산 정책은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의 비자발적 비혼을 막으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보육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등 양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다. 제주도 출산 현황

서울시와 서울시정책연구원(2022)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4대 분야(안심돌봄·편의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에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가정 내 아빠의 양육 참여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양육자의 특성과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공통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실’, ‘시간제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도시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가정양육지원사업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 전체 17,97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아동현황(2023년 3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이상 | 계      |
|------|-------|-------|-------|-------|-------|-------|-------|--------|
| 제주시  | 985   | 2,638 | 3,036 | 3,098 | 2,589 | 1,061 | 49    | 13,456 |
| 서귀포시 | 261   | 790   | 955   | 1,034 | 767   | 679   | 31    | 4,517  |
| 계    | 1,246 | 3,428 | 3,991 | 4,132 | 3,356 | 1,740 | 80    | 17,973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0~40대 젊은층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인구 불균형이 심각하다(제민일보, 2023). 더 큰 문제는 10~40대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2년)에 의하면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1%이다. 반면, 재정수입과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인구인 청소년과 청년층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며, 초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민일보, 202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저출산과 인구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청소년 및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제주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 예전보다 수월해지면서 인구 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회의 구조를 단시일내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촌에도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과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제민일보(2023)에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들이 출산기피 현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주로 여성이 담당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2023)의 연구보고서는 2016년 이후 제주지역 혼인율이 점차 하향되고 있고,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남성보다 여성들의 혼인율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경제적 부담,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 없이 동거하거나, 결혼 없이도 동거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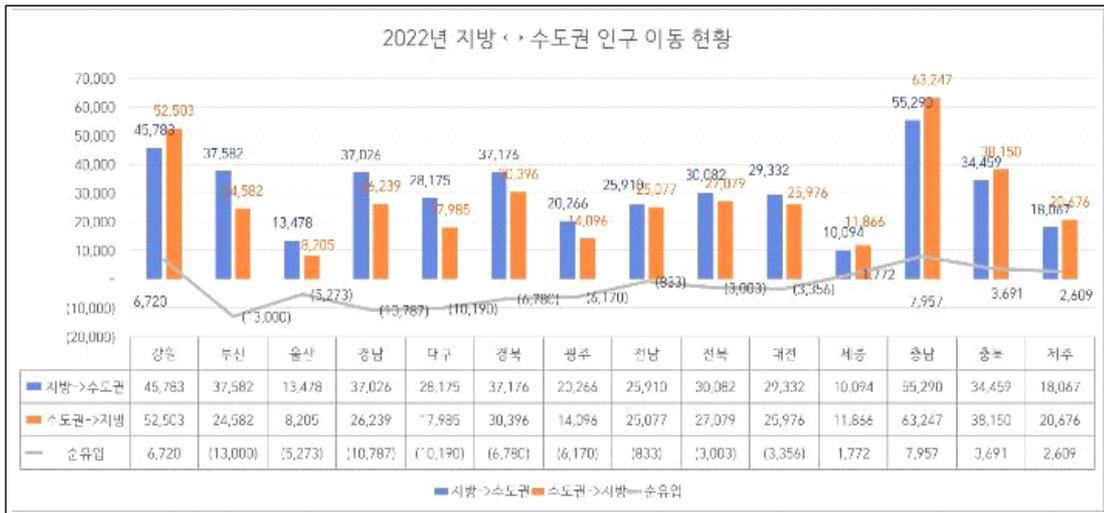


그림 II-2. 국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 통계청(2023). 인구조사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불균형과 출산 문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별, 세대별로 저출산·저소득 양육자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실직·미취업·주부 포함) 및 산후~영아기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가치관의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자 육아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 가.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생활과 육아, 교육 등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에 따른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으로 부정적 감정인 우울 증상과 무력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은영, 2021).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데,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손상시키고, 가족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Gjesfjeld et al., 2010).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사건 혹은 상황은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중 부정적인 경험은 많은 적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흔히 스트레스(stress)라고 한다. 즉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과 같은 부정적 정서 특성(조준오, 나정, 2016)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의무는 대부분 어머니의 부담으로 인식되기에(서석원, 이대균, 2014; 유지연, 2019; 한지현 외, 2015),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현대사회는 결혼 후 부모세대와 비동거 보편화로 자녀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면서 어머니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다(정지나, 2016).

이처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처음 양육하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에 어머니는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강보미, 김경철, 2023).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결혼, 출산과 육아라는 생의 큰 변화를 짧은 기간에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과 역할, 과업에 대한 부담에 놓이게 되고(최윤희, 문혁준, 2016), 영아기의 잦은 수유와 불규칙한 수면시간, 양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박재롬 외, 2015; Sinai & Tikotzky, 2012).

즉 영유아를 양육하는 일상에서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할 시기이므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죄책감, 개인 생활 제한 및 부족, 신체적 피로감, 부모의 고통으로 인한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홍예지, 이순형, 2017).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능력에 회의적 생각으로 인해 영아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오아라, 2023), 영아의 발달에 직접 관계보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등의 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oker et al., 2016).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자 자신의 정신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민정 외, 2020).

우선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나 어려움, 부담감 등을 의미(Abidin, 1990)하며, 부모 역할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의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Coplan et al., 2003).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 부모 역할에 대한 고통 및 부담감,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부모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의하였다(박정미 외, 2017). 또한 양육 스트레스란 가족체계에서 직면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심리적·신체적·정신적 부담감 부적응을 뜻하며(남미예, 2018), 가족 간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대면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윤혜영, 201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경험하는 고통으로 정의하였다(박시현, 2019).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신체적 피로, 개인 생활의 제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아름, 2021)으로 정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김선희, 2021).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고통,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자녀 기질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유희, 2022). 그리고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의미한다(지민정, 2023).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느끼는 우울, 사회적 고립, 자녀와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양육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평가하는 상태를 말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일상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 부모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지각, 자녀의 특성에 대한 지각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오아라, 2023).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로의 전환기에 부모 대부분이 경험하고 미리 추측되는 스트레스이므로 생활 속의 다른 중요한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로 여겨질 수도 있다(윤인선, 2018).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하여 경험되고 누적되므로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이윤주, 김진숙 2012).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이 매일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시간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윤인선, 2018).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 더욱 힘들고 역할갈등을 느끼게 하며, 가족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진화, 2018, 최서운, 201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이를 완화,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 나.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최근 사회의 변화는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문화적 요인 외에도 매스미디어와 SNS 사용 증가로 공유하는 육아정보와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양육자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양육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신수희, 2018).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엄

지원(2011)은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간 양육협력, 사회적지지로 구성하였다. 이연숙(2016)은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일상적 스트레스, 건강 및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의 고통, 부모의 억압과 유능성의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윤정경(2021)은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주부 어머니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소진,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이 모두 양육소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소진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박경미(2014)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에 따른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 양육 위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박경미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영향요인으로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가족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장미해(2023)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자녀의 연령, 결혼 만족도 등이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Abidin(1995)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행동 특성, 어머니 특성, 일반적인 생활스트레스 특성의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의 행동특성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셋째, 일반적인 생활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로 분류하였다. Abidin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부담이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동특성, 사회적 지지, 어머니 자신의 특성, 주변의 상황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지연(2020)은 Abidin(1995)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로 제시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의 3가지 요인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머니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지 못할 때 어머니의 지각에 초점을 두며,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부모와 그 부모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는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김지연, 2020).

둘째, 까다로운 아동은 아이들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을 더 까다롭게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녕감은 자녀의 까다로움과 양육 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유희, 2022). 까다로운 아동은 불규칙한 활동이 일상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아동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박성연 외, 2007). 즉 까다로운 아동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기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문제행동 정도를 의미하며,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에는 문제행동 수준, 아동의 기분이나 요구, 적응 등이 포함된다.

셋째, 어머니의 고통이란 유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이연숙, 2016). 즉 부모의 고통은 맞벌이, 양육환경 등의 스트레스에 일반적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더해진 어려움으로 인식되며,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아동의 양육환경으로 하여금 어머니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는 양육에 관한 자신감을 떨어뜨려 어머니로써 역할수행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유희, 2022). 즉 어머니의 고통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 활동 제한에 따른 사회적인 고립과 역할 제한,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포함된다.

그리고 박정현(2019)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또는 죄책감을 유발하는 긴장으로 정의를 내리며 양육성가심, 생활제한, 양육죄책감을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신자(2020)

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훈육유형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훈육 성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구성요소로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유희(2022)는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김지연(2020)은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3가지를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신자(2022)는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항목을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주거환경, 취업, 사회적지지 기반, 경제적 여건 등), 부모 역할 수행 부담감(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의 부담감), 부모의 고통(배우자 관계, 건강, 부모의 억압 등) 3가지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분류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연구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4 양육 스트레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 연구자          | 구성내용   | 연구대상          |
|--------------|--|---------------|
| Abidin(1995) |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부모            |
| 정경미 외 (2008) | Abidin(1995)가 분류한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을 토대로 측정함.                                    | 부모            |
| 엄지원(2011)    |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예측 변인을 도출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간 양육협력, 사회적지지를 구성요인으로 선정함.             | 영아를 둔 어머니     |
| 박경미(2014)    |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 요인, 자녀 요인, 가족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도출함.                                  | 어머니           |
| 이연숙(2016)    |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일상적 스트레스, 건강 및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의 고통, 부모의 억압과 유능성                              | 유아를 둔 어머니     |
| 김지연(2020)    | 영유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부모-자녀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부모의 고통)의 매개효과와 양육지식의 조절효과를 연구함 |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
| 정신자(2020)    |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와 훈육유형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함.                              | 영유아를 둔 어머니    |
| 윤정경(2021)    |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을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하여 전업주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 미취학 자녀의 어머니   |
| 장미혜(2023)    |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을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선정                             | 영유아를 둔 어머니    |

###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 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

유아기는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최초로 성립하는 시기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사회를 탐색하는 시기이다(Clark & Ladd, 2000). 이 시기는 유아가 처음 사회 구성원과 상호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이 중요시된다. 유아는 가정이 아닌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획득해 나간다(김태정, 2022). 사회 발달적 측면에서 이러한 능력과 기술 습득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정서 및 인지 발달과 연관성이 높고, 유아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고(이혜수, 서주현, 2021; Denham, 2006; Raver & Zigler, 1997),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im & Lim, 2018).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지닌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 관계 형성, 타인 공감 능력, 적절한 권리 및 요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 제시, 놀이에 참여, 적절한 협상력과 타협으로 함께 즐길 수 있고(McClellan & Katz, 2001), 이는 향후 성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인생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분야이며, 유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사회적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김정희, 문혁준, 2011).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하며, 유아의 정서·사회발달과 자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구자연, 2017).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화과정 중에서 필요로 하는 행동과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고,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화과정 속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성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김하련, 2014).

이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에 관한 외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성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했다(Rubin, 1995).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개인적 사회적 기술을 의미하며 사회의 규준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을 말한다(이혜원, 2005; Hubbard & Coie, 1994; Hurley, 2003).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이라 할 수 있다(Mills & Rubin, 1990).

국내 선행연구로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는 다양한 유능성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 스스로 정서·행동을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을 말하며(이현미, 2012), 유아가 다양한 사회상황 내에서 타인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및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최미숙, 2014).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대인관계 및 사회적 목표를 이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며(김순이, 2016),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서의 이해와 정서표현, 정서조절 및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식과 또래와의 사회성 발달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유아 스스로 긍정적 태도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개인의 능력으로서 유아기에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였다(이영희, 2017).

이에 추가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사회·정서적으로 적절하게 긍정적,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회적, 정서적 유능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이희진, 2018),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적응을 달성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이다(Lim, 2019).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속한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윤아, 2020).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란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적응을 위해 필요한 개인 내적 능력 및 개인 간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스스로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포함한다(김형서, 2023).

최근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역량, 사회성, 사회적 능력, 상호관계 기술, 또래 상호작용기술, 사교성 등의 용어로 사회·문화적 상황, 연구자의 관점, 연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이윤아, 2020).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부모의 부모 양육태도, 정서, 경제·사회적 배경과 지위,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성별, 연령, 성격, 자녀의 기질, 형제관계, 또래, 교사, 교실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이 있다(구자연, 2017; 김지연, 2016; 박시내, 2021).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생득적인 요소보다는 내·외적인 요인들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하게 된다(김순이, 2016; 이희연, 장경은, 2015).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중요성에 관하여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사회관계를 시작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정미애, 2022),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심숙영, 임선아, 2018). 이에 관하여 선행연구(O'Malley, 1977; Raver & Zigler, 1997; 이희연, 장경은, 2015)에 따르면, 유아는 여러 가지 상황 내에서 또래와 교사 등과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이러한 능력은 사회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Raver & Zigler, 1997).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타인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O'Malley, 1977). 그리고 긍정적 사회적 유능성을 가진 유아는 사회적 기술과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교육기관의 규칙이나 요구,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Miller & Olson, 2000; 최혜진, 광효민, 2017). 따라서 유아가 타인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유아는 성인이 되

어서도 사회적 관계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과 대인관계나 또래 관계에서 인기가 많으며, 주도적인 역할과 독립심이 강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Vaugh et al., 2009). 이처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 발달은 유아가 타인에게는 반응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독립적이며, 규칙에 순응하는 특징을 지니며, 성장하면서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행동들을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간다(Johnson et al., 2000)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아기에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이 낮은 유아일수록 타인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맺기 활동에서 사회적 기술이 미숙하여 관계갈등의 발생이 높고, 관계맺기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어 복종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시내, 2021). Merrell(2001)은 유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품행문제, 물질남용, 비행 및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은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 습득하는 사회적 유능성이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 저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며, 유아 자아 및 사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nderson & Messick, 1974; Attili, 1990).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자아개념이 높고 또래와 상호작용이 원활한 반면, 부족한 유아는 낮은 자아개념을 보이며 또래 거부 등의 발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stelnik et al., 2015; 서정은, 2012; 안화진, 2015).

O'Malley(1977)는 사회적 유능성이란 상호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유아의 구성요인으로 인성 구조적 관점, 사회 상호작용적 관점, 행동 특성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인성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은 부정적 속성 또는 긍정적 속성을 지닌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향으로 보았다. 둘째, 사회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소속된 사회조직 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발달해 나가는 능력으로 보았다. 셋째, 동물행동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적응과정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며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O'Malley(1977)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Cavell(1990)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Cavell의 연구 모형에 따르면, 각각의 요인들은 위계적인 연관이 있는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이후 유아는 사회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적 수행을 하게 되면서 유아는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Katz & McClellan(1997)는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구성 요소로 사회적 태도 또는 성향, 사회적 지식과 이해, 사회적 기술, 정서조절 능력 등을 제안하였고 이들 구성요소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지속·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Kostelnik 외(2015)는 사회성 발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긍정적 자아정체감, 대인간 기술, 자기 조절, 계획 및 결정하기, 사회적 가치, 문화적 유능성 등을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자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태정(2022)은 하위요인으로 불안-위축된 행동, 분노-공격적 행동,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선정하였다. 김태정은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지만 놀이성을 매개할 때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혜원(2005)은 사회적 유능감 교사용 척도를 개발, 구성요인으로 자기 조절적 측면인 정서성과 정서조절, 사회인지 측면인 또래관계기술과 사회적 규범이해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이나 또래관계, 사회적 목표달성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대인관계 뿐 아니라 정서 및 조절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능력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유능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표 II-5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

| 연구자                           | 구성내용  | 연구대상        |
|-------------------------------|---|-------------|
| O'Malley<br>(1977)            | 인성 구조적 관점, 사회 상호작용적 관점, 행동 특성적 관점으로 분류  | 영유아,<br>학부모 |
| Cavell(1990)                  | 사회적 수행, 사회적 기술, 사회적 적응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유능성의 개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 영유아,<br>학부모 |
| Katz &<br>McClellan<br>(1997) | 사회적 태도 또는 성향, 사회적 지식과 이해, 사회적 기술, 정서조절 능력                                       | 아동,<br>학부모  |
| Kostelnik<br>등(2015)          | 긍정적 자아정체감, 대인 간 기술, 자기 조절, 계획 및 결정하기, 사회적 가치, 문화적 유능성 등을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     | 아동,<br>학부모  |
| 이혜원(2005)                     | 사회적 유능감 교사용 척도를 개발, 구성요인으로 자기조절적 측면인 정서성과 정서조절, 사회인지 측면인 또래관계 기술과 사회적 규범 이해로 제안 | 영유아,<br>교사  |
| 김태정(2022)                     | 불안-위축된 행동, 분노-공격적 행동, 긍정-친사회적 행동을 선정  | 영유아,<br>아버지 |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성의 구성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구성요소 또한 각 연구자의 관점 및 특징,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변인 간 영향 관계 및 조절효과

##### 가.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전인적 발달의 기초가 되며, 인간발달의 가장 민감한 시기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로 자녀 양육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정 내 역할, 가족생활의 변화로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는 직업인, 어머니, 주부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남미애, 2018).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자체가 일상적 신경질, 짜증, 당황 등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이 일상에서 지속 반복되어 일어나면 양육 스트레스의 지각을 높이게 될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이에 더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생활을 제약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현인순, 2018).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김민정 외, 2020) 작용하여 대체적으로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원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자녀의 특성에 기인한 요인, 어머니의 사회 관계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최항준, 조수경, 2015). 그리고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요인 관련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강보미, 김경철; 2023; 이미영, 2019).

그리고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로 12~60개월 영유아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자녀가 어릴수록 높

아지고(Deater-Deckard & Scarr, 1996), 자녀가 9개월에서 36개월일 때 양육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며 학령기에는 감소한다고 하였다(Crnic & Booth, 1991). 그리고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4~5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점점 감소하고(손수경 외, 2016), 유아기로 갈수록 유아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에 따라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김영미, 송하나, 2015)로 볼 때, 유아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아기는 가정이라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 교육기관에서 또래와 교사 등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 유아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문영경, 2020).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이후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긍정적인 발달은 유아기에 필수적인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구자연, 2017; Frey et al., 2011). 이에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보호와 사랑으로, 특히 어머니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Eisenberg, 2014).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보다도 강력하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기관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Anthony et al., 2005; Whittaker et al., 2011).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어 왔다(Whittake et al., 2011; 박남심 외, 2020).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 육아 효능감, 육아 행동, 자녀의 사회적 능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하한다(이현희 외, 2013). 또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남미예, 201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중단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옥주, 2016).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에서만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이희진, 201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영, 2018).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남심 외, 2020).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 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유능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지, 2021).

이에 추가하여 가족 상호작용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최우수, 성영실, 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효숙 외, 2021).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영미, 2022). 그리고 이웃의 지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에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상호작용의 균형성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 영향력을 보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현선, 202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하시키며, 이는 가족관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볼 수 있다.

#### 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출산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보고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 역할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 사건의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 나타났다(Crnic & Greenberg, 1990). 즉 사회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현재 국내 기혼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양육 부담감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가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고령 출산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김영미 외, 2018).

어머니는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과 탐색에 필요한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김지연, 2016)으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울 증상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손상시키고, 가족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Gjesfjeld et al., 2010). 그리고 어머니는 유아와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며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양육 부담감 등을 경험할수록 유아는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Amato & Fowler, 200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즉 유아의 성,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한준아 외, 2014). 그리고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찍 부모가 된 경우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더 많고(김상립, 박창현, 201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35세 미만, 35세 이상)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는 없고,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이주옥, 2009), 반대 결과로 중단연구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이아름, 2021).

이외에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선행연구로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경우, 취업상태인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므로 자녀의 행동 및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나, 반면에 취업상태인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므로 자녀와 맺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러나 선행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직업 유무 즉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의 기질이나 학습기대와 관련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영미, 송하나, 2015; 김진경, 2015; 손수민, 2012; 안지영, 2010; 이아름, 2021; 이예진, 윤수정, 2018; 이주옥, 2008).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업주부 어머니에 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신체적 피로감과 양육에 필요한 제한된 시간, 그리고 자녀와의 격리로 인한 불안,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고,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양육해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전업주부 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나현 외, 2013; 김민정 외, 2020; 송영주 외, 2014; 임선아, 임효진, 2015; 최은영 외, 2018). 그리고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로서 역할 이외에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며 비취업모에 비해 긴 시간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므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비취업모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민정 외, 2020).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이선영, 안선희, 2016),

추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한준아 외, 2014),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에서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 여부, 직업,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예, 2018).

이상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 출산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고령 출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로 연결되며, 35세 미만의 일반 출산모 보다는 35세 이상 고령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박희진, 2006; 차삼숙, 2005).

한편, 유아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유아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Amato & Fowler, 2002; Connell & Goodman, 2002).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발달은 유아의 직접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Eisenberg, 2014).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덜 온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함으로 간접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희 외, 2013). 이에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최옥주, 2016).

특히 영유아기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자율성과 신뢰감을 습득하는 시기이며, 양육자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와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현지, 2015).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사회적 유능성 차이분석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 여부, 직업,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예, 2018). 그리고 이와 유사연구로 모의 연령을 30세 이하, 31-35세, 36세 이상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확인한 연구에서 취업모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가 31세-35세, 36세 이상 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비취업모인 경우 모의 연령이 다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영미, 2001).

한편, 어머니 첫 출산 연령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유능성 간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유사연구가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미예, 2018). 그러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서 모-자녀관계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서 모-자녀관계의 애착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부분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현인순, 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을 높이는 부정적 요인이나 가족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9). 이외에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특성 원인의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강보미, 김경철, 2023).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구의 차별성 측면에서 첫 자녀 출산 시기를 35세 미만을 일반출산,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등 연령대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변인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향후 어머니의 연령과 관련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모집단으로 하여, 첫 자녀 출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산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고 300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업체 패널 조사를 통해 2023. 03. 22-04. 05(15일)까지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자료 중 최종 300명이 연구에 이용되었고, 연구대상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Ⅲ-1 과 같다.

연령은 40~49세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 31.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42.3%로 가장 높았고, 대졸 37.7%, 고졸 이하 20.0%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장생활(자영업) 경력은 7년 이상이 45.7%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4~7년 31.3%, 1~3년 23.0%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일제 취업이 40.3%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30.0% 시간제 취업 29.7%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첫 자녀 출산 시기는 20~35세 미만이 66.7%, 35세 이상은 33.3% 등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아와 여아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남아를 선호하던 가족관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1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빈도(명)     |     | 백분율(%) |
|-----------------------|-----------|-----|--------|
|                       |           | 300 | 100.0  |
| 연령                    | 30~39세    | 95  | 31.7   |
|                       | 40~49세    | 183 | 61.0   |
|                       | 50~59세    | 22  | 7.3    |
| 학력                    | 고졸 이하     | 60  | 20.0   |
|                       | 전문대졸      | 127 | 42.3   |
|                       | 대졸        | 113 | 37.7   |
| 어머니의<br>직장생활(자영업)     | 1~3년      | 69  | 23.0   |
|                       | 4~7년      | 94  | 31.3   |
|                       | 7년 이상     | 137 | 45.7   |
| 어머니의 직업               | 전업주부      | 90  | 30.0   |
|                       | 전일제 취업    | 121 | 40.3   |
|                       | 시간제 취업    | 89  | 29.7   |
| 어머니의<br>첫 자녀 출산<br>연령 | 20~35세 미만 | 200 | 66.7   |
|                       | 35세 이상    | 100 | 33.3   |
| 남아 자녀의 수              | 0명        | 110 | 36.7   |
|                       | 1명        | 152 | 50.7   |
|                       | 2명        | 35  | 11.7   |
|                       | 3명        | 3   | 1.0    |
| 여아 자녀의 수              | 0명        | 101 | 33.7   |
|                       | 1명        | 154 | 51.3   |
|                       | 2명        | 43  | 14.3   |
|                       | 3명        | 2   | 0.7    |

## 2. 측정 도구

### 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의 축약형을 번안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 축약형)를 이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부모의 고통 12문항,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1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설문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표 III-2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300)

| 하위요인      | 문항 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alpha$ |
|-----------|---------|------|---------------------|
| 부모의 고통    | 1 - 12  | 12   | .875                |
| 역기능적 상호작용 | 13 - 24 | 12   | .925                |
| 까다로운 아동   | 25 - 36 | 12   | .921                |
| 전체        |         | 36   | .951                |

\* 역 채점 문항: 22, 32

###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현심(1994)이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유치원용(Social Competence Scale-Kindergarten)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11문항), 인기도/지도력(8문항), 사회적 참여(5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8로 높게 나타났고,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를 하위요인으로 하여 신뢰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의 문항 번호 및 내적합치도 계수는 표 III-3 과 같다.

표 III-3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300)

| 하위요인    | 문항 번호                                  | 문항 수 | Cronbach's $\alpha$ |
|---------|--|------|---------------------|
| 대인 적응성  | 1, 3, 5, 7, 10, 12, 14, 19, 21, 22, 24 | 11   | .885                |
| 인기도/지도력 | 2, 6, 8, 11, 15, 16, 17, 20            | 8    | .859                |
| 사회적 참여  | 4, 9, 13, 18, 23                       | 5    | .847                |
|         | 전체                                     | 24   | .908                |

\* 역채점 문항: 1, 5, 10, 14, 19, 21, 24

#### 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 척도

출산 연령의 기준은 국제산부인과학회(1958)의 출산분류 기준에 따라 35세 이상 임신부를 고령출산이라고 규정한 근거에 따라 어머니의 첫 자녀 출산 시기를 구분하여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20-34세)은 일반출산으로 분류했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녀 육아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하였다.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회귀분석 및 자녀 출산 연

령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고령 출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첫 출산 연령 기준으로 35세 미만을 일반출산, 그리고 35세 이상을 고령출산으로 구분하였고,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조절회귀분석방법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이 연구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하위요인들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모의 고통(M=3.192), 역기능적 상호작용(M=2.109), 까다로운 아동(M=2.451)로 나타났다. 이때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IV-1 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IV-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기술통계 (N=300)

| 구분        | M     | SD   | 왜도    | 첨도    |
|-----------|-------|------|-------|-------|
| 부모의 고통    | 3.192 | .688 | -.320 | .073  |
| 역기능적 상호작용 | 2.109 | .766 | .836  | .039  |
| 까다로운 아동   | 2.451 | .790 | .287  | -.583 |
| 전체        | 2.584 | .642 | .251  | -.119 |

다음으로 출산 연령에 따라 구분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출산의 경우 부모의 고통(M=3.216), 역기능적 상호작용(M=2.107), 까다로운 아동(M=2.457), 전체 2.5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출산인 경우는 부모의 고통(M=3.145), 역기능적 상호작용(M=2.113), 까다로운 아동(M=2.439), 전체 2.566으로 나타났다. 즉,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출산 연령과 관계없이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출산보다 일반출산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IV-2 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령별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IV-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령별 기술통계 (N=300)

| 출산 연령            | 구분        | M     | SD   | 왜도    | 첨도    |
|------------------|-----------|-------|------|-------|-------|
| 일반출산<br>(35세 미만) | 부모의 고통    | 3.216 | .695 | -.395 | .089  |
|                  | 역기능적 상호작용 | 2.107 | .740 | .792  | -.024 |
|                  | 까다로운 아동   | 2.457 | .739 | .343  | -.422 |
|                  | 전체        | 2.593 | .614 | .193  | -.111 |
| 고령출산<br>(35세 이상) | 부모의 고통    | 3.145 | .675 | -.176 | .175  |
|                  | 역기능적 상호작용 | 2.113 | .821 | .904  | .104  |
|                  | 까다로운 아동   | 2.439 | .886 | .232  | -.870 |
|                  | 전체        | 2.566 | .699 | .348  | -.160 |

#### 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들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대인 적응성(M=3.725), 인기도/지도력(M=3.312), 사회적 참여(M=3.892)로 나타났다. 이때 해당 변인의 점수 값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참여가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아래 표 IV-3 에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IV-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전체 기술통계 (N=300)

| 구분      | M     | SD   | 왜도    | 첨도    |
|---------|-------|------|-------|-------|
| 대인 적응성  | 3.725 | .612 | -.204 | -.445 |
| 인기도/지도력 | 3.312 | .595 | -.341 | 1.259 |
| 사회적 참여  | 3.892 | .610 | -.491 | .161  |
| 전체      | 3.622 | .483 | -.186 | .332  |

다음으로 출산 연령에 따라 구분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출산의 경우 대인 적응성(M=3.705), 인기도/지도력(M=3.244), 사회적 참여(M=3.832), 전체 3.578로 나타났고, 고령출산은 대인 적응성(M=3.764), 인기도/지도력(M=3.449), 사회적 참여(M=4.012), 전체 3.710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변인의 점수 값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출산보다 고령출산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래 표 IV-4 에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연령별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IV-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연령별 기술통계 (N=300)

| 출산 연령            | 구분      | M     | SD   | 왜도    | 첨도    |
|------------------|---------|-------|------|-------|-------|
| 일반출산<br>(35세 미만) | 대인 적응성  | 3.705 | .610 | -.296 | -.240 |
|                  | 인기도/지도력 | 3.244 | .580 | -.588 | 1.460 |
|                  | 사회적 참여  | 3.832 | .616 | -.606 | .313  |
|                  | 전체      | 3.578 | .472 | -.497 | .580  |
| 고령출산<br>(35세 이상) | 대인 적응성  | 3.764 | .615 | -.031 | -.892 |
|                  | 인기도/지도력 | 3.449 | .604 | -.002 | .698  |
|                  | 사회적 참여  | 4.012 | .582 | -.203 | -.599 |
|                  | 전체      | 3.710 | .495 | .291  | -.552 |

## 2.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에서는 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이용되고 있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상관관계분석

| 변수             | 1        | 1-1      | 1-2      | 1-3      | 2       | 2-1     | 2-2     | 2-3 |
|----------------|----------|----------|----------|----------|---------|---------|---------|-----|
| 1. 양육 스트레스     | 1        |          |          |          |         |         |         |     |
| 1-1. 부모의 고통    | .774***  | 1        |          |          |         |         |         |     |
| 1-2. 역기능적 상호작용 | .884***  | .487***  | 1        |          |         |         |         |     |
| 1-3. 까다로운 아동   | .908***  | .545***  | .763***  | 1        |         |         |         |     |
| 2. 사회적 유능성     | -.518*** | -.264*** | -.527*** | -.523*** | 1       |         |         |     |
| 2-1. 대인 적응성    | -.625*** | -.363*** | -.587*** | -.639*** | .835*** | 1       |         |     |
| 2-2. 인기도/지도력   | -.237*** | -.105    | -.263*** | -.231*** | .775*** | .357*** | 1       |     |
| 2-3. 사회적 참여    | -.220*** | -.039    | -.296*** | -.216*** | .748*** | .411*** | .598*** | 1   |

\* $p < .05$ , \*\* $p < .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고통( $r=.774$ ,  $p<.001$ ), 역기능적 상호작용( $r=.884$ ,  $p<.001$ ), 까다로운 아동( $r=.908$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 $r=-.518$ ,  $p<.001$ ), 대인 적응성( $r=-.625$ ,  $p<.001$ ), 인기도/지도력( $r=-.237$ ,  $p<.001$ ), 사회적 참여( $r=-.220$ ,  $p<.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의 고통은 역기능적 상호작용( $r=.487$ ,  $p<.001$ ), 까다로운 아동( $r=.545$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 $r=-.264$ ,  $p<.001$ ), 대인 적응성( $r=-.363$ ,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까다로운 아동( $r=.763$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유능성( $r=-.527, p<.001$ ), 대인 적응성( $r=-.587, p<.001$ ), 인기도/지도력( $r=-.263, p<.001$ ), 사회적 참여( $r=-.296, p<.001$ )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까다로운 아동은 사회적 유능성( $r=-.523, p<.001$ ), 대인 적응성( $r=-.639, p<.001$ ), 인기도/지도력( $r=-.231, p<.001$ ), 사회적 참여( $r=-.216,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적응성( $r=.835, p<.001$ ), 인기도/지도력( $r=.775, p<.001$ ), 사회적 참여( $r=.748,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대인 적응성은 인기도/지도력( $r=.357, p<.001$ ), 사회적 참여( $r=.411,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인기도/지도력은 사회적 참여( $r=.598,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 부(-)적 상관관이 나타남에 따라 회귀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 $\beta=-.518,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반비례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 표 IV-6 에 제시하였다.

표 IV-6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N=300)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i>p</i> |
|---------|----------|-----------|---------|------------|----------|
|         | <i>B</i> | <i>SE</i> | $\beta$ |            |          |
| (상수)    | 4.628    | .099      |         | 46.663***  | .000     |
| 양육 스트레스 | -.389    | .037      | -.518   | -10.451*** | .000     |

\*\*\**p*<.001

#### 4.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의 고령출산과 일반출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조절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다중조절회귀 모형을 실시하는 첫 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점수를 중심화(Mean-centering)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값인 VIF값이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중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먼저 양육 스트레스를 투입한 1단계 모형에서의 설명력은 26.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389$ ,  $\beta=-.518$ ,  $t=-10.451$ 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출산 연령을 첨가한 모형의 설명력은 28.2%로 증가하였다.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

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조절변수인 출산 연령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유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3단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출산 연령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29.9%로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의 효과는  $B=-.388$ ,  $\beta=-.166$ ,  $t=-2.66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를 요약하여 다음의 표 IV-7 에 제시하였다.

표 IV-7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검증

| 단계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i>t</i>   | $R^2$ ( <i>adj R^2</i> ) | $\Delta R^2$ | <i>F</i>   |
|----|------------|----------|-----------|---------|------------|--------------------------|--------------|------------|
|    |            | <i>B</i> | <i>SE</i> | $\beta$ |            |                          |              |            |
| 1  | 양육 스트레스    | -.389    | .037      | -.518   | -10.451*** | .268 (.266)              | -            | 109.230*** |
| 2  | 양육 스트레스    | -.388    | .037      | -.515   | -10.485*** | .282 (.278)              | .014         | 58.455***  |
|    | 출산 연령      | .122     | .050      | .119    | 2.427*     |                          |              |            |
| 3  | 양육 스트레스(A) | -.309    | .047      | -.411   | -6.586***  | .299 (.292)              | .017         | 42.139***  |
|    | 출산 연령(B)   | .120     | .050      | .118    | 2.421*     |                          |              |            |
|    | 상호작용항(A*B) | -.200    | .075      | -.166   | -2.665**   |                          |              |            |

\*\*\* $p < .001$ , \*\* $p < .01$ , \* $p < .05$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어머니 첫 출산 연령이 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출산 연령을 일반출산(35세 미만), 고령출산(35세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화 형태를 도표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V-1 에 제시하였다.

그림 IV-1 을 보면, 출산 연령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출산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 간 부(-)적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절효과 분석 후 도출된 그래프를 살펴보면 출산 연령이 높은 고령집단은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출산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 출산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출산 연령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부(-)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요인이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므로 일반출산 어머니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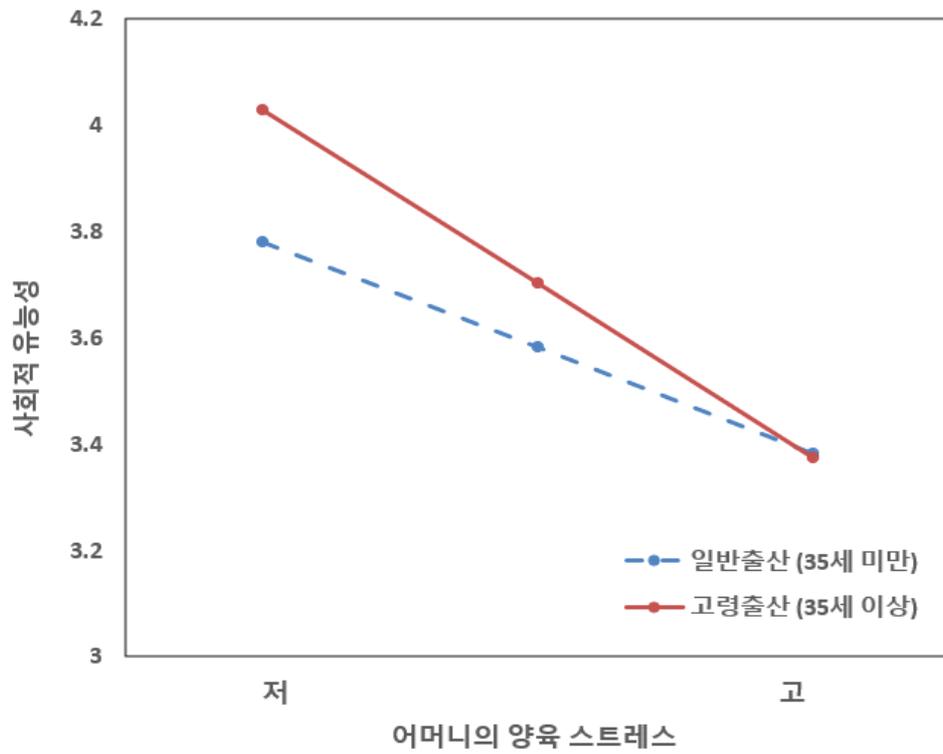


그림 IV-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영향에서 출산 연령의 조절효과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이 연구는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특히 첫 아이 고령 출산에 따른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첫 자녀 출생 연령을 35세 미만(일반출산), 35세 이상(고령출산)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 확인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 중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보다도 강력하게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 하였다(Anthony et al., 2005; Whittaker et al., 2011; 박남심 외, 2020). 그리고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온정적 반응을 제어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희 외, 2013).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예, 2018; 최옥주, 2016).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이희진, 201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또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상관과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지, 2021; 박남심 외, 2022; 송민영, 2018).

이외에도 가족 상호작용 매개효과(최우수, 성영실, 2021), 가족 상호작용의 균형성(서현선, 2023), 자아존중감(정명미, 2022) 등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아지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효숙 외, 2021).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출산 연령이 부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하여 직업 또는 취업 여부, 학력 또는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분석, 그리고 일반출산(35세 미만) 보다 고령출산(35세 이상)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박희진, 2006; 차삼숙, 2005) 등이 있다. 그리고 차이분석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연구는 학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고 직업, 연령, 취업 여부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남미예, 2018)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 유사연구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남미예, 2018).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김영미, 송하나, 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모-자녀 관계의 애착정도에서 취업 어머니의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이예진, 윤수정, 2018). 그리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가족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박정현, 이미숙, 2019), 이외에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 조절효과를 보고한 연구(강보미, 김경철, 2023) 등이 있다.

즉 이 연구 결과 출산 연령이 높은 고령집단은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관대한 평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출산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이는 고령출산 어머니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므로 일반출산 어머니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 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강화, 양육자 건강지원 및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연계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 등 제반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 센터 등에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장소에 상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재정적 지원으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보다 향상될 것이다.

둘째, 조절효과 결과 일반출산(35세 미만)보다 고령출산(35세 이상)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여성들은 출산과 더불어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와 더불어 고령 출산모의 경우 고령 출산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출산모에 비해 나이가 많다는 피해의식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지만, 고령출산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보다 높은 것으로 관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 연구결과 일반출산 집단에 비해 고령 출산집단이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감소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고령 출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비출산 부모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첫 자녀 출생에 의한 어머니의 일반출산(35세 미만)과 고령출산(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조절효과 연구는 고령출산이 증가하는 시대적 현상과 연구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첫 출산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을 고령출산, 35세 미만을 일반출산으로 구분하여 표본 수 300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한국의 전 지역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표본 수를 확대하여 전 지역의 자녀 육아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일반화 및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 그리고 첫 자녀 출산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는 조절효과 검증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 학력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매개효과 검증을 병행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또는 매개된 조절효과 등 보다 확장된 연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에 한정되어 첫 출산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심도 있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양적 연구 외에도 심층적인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보미, 김정철(202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논집**, 27(2), 75-97.
- 강수지(202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4).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아동학회지**, 15(2), 169-180.
- 고길곤(2021).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고양: 문우사.
- 구자연(2017).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김동선, 문혁준(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415-426.
-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양육지식, 영아의 성별과 기질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2), 1-15.
- 김상림, 박창현(2016). 아버지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심리특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451-464.
- 김선희(202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인권 친화적 양육태도 척도 개발 및 적용.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연, 도형미(2015).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28(4), 225-242.
- 김수아(202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5(3), 101-124.
- 김순이, 서호찬(2016).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8, 93-120.
- 김신정, 김계숙, 김영희(2007).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3-12.
- 김영미(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광주 시내 어린이집 아동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송하나(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영미, 정지현, 김혜숙(2018).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김완식, 강영신(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아동의 자기 격려 관계에서 아버지 공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6), 3895-3910.
- 김용미(2005). 늦부모됨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67-178.
- 김은영(2021).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 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42(10), 23-38.
- 김지연(2020). **영유아 자녀 양육자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양육지식의 조절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김영희(2017). 어머니의 정서성,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117-137.

- 김진경(2015).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환경 탐색-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63-79.
- 김진영(2023). 유아기 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미드의 자아이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정(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리더십 및 사회적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홍, 김동식, 김은지, 배호중, 민현주(2011).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김하련(2014). 전통놀이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지(2015). 미술치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애(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취업 여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선영(2018). 늦둥이 어머니의 육아 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경(2020). 영아기의 애착 안정성과 유아기 사회적 유능 성의 관계: 이후 어머니시기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온정적 양육 행동의 통합 모형 형성. **아동학회지**, 41(1), 29-45.
- 박경미(2014).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2012). **엄마 교과서**. 서울: 비룡소.
- 박남심, 송승민, 엄희경(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

- 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 박새롬, 박혜준(2016).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아동학회지**, 37(5), 33-52.
- 박성매(2019).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와 P.E.T.를 병행한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케네스루빈,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2007). 아동의 성,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종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17.
- 박시내(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기질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2019). **부모 역량이 아버지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 배미남, 이미형, 이은진(2019). 한국 성인의 중독위험, 삶의 만족도, 우울, 자살 사고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28(2), 133-143.
- 박정미, 서은주, 홍순옥(2017). 아버지의 부모역량이 유아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1(6), 459-478.
- 박정현(2019). **영유아자녀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현가족 및 원가족 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현, 이미숙(2019). 영유아자녀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레질리언스의 조절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7(2), 157-176.
- 박지원, 남현동, 남태우(2022).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와 계층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99-117.
- 박희진(2005).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산과적 예후**.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은, 심미경(2022). 유아의 정서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3(2), 79-98.
- 변길희(2019). 저출산 고령사회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리뷰**, 4(1), 1-17.

- 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송민영(201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39-162.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아동학회지**, 35(5), 15-35.
- 송정애, 정해은, 김미영(2008). **부모교육**. 과주: 학현사.
- 서석원, 이대균(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서성희(2014).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대상 Satir변형체계치료모형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현선(2023). 이웃의 지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 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에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5(1), 252-274.
- 성영실, 이성주(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3(1), 33-55.
- 신수정, 문리학(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2), 33-52.
- 신수희(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은(2012). **어머니의 애착 및 자아개념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성취압력,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7(6), 255-265.
- 오가영, 한지현(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과 성인애착 불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47-64.
- 오아라(202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훈, 정미애(2022). 부모의 공동양육,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2), 369-376.
- 유계숙, 주수산나, 김종우(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기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3), 5-32.
- 유성모(2015). **논문작성을 위한 SPSS 실전 통계분석**. 서울: 황소걸음아카데미.
- 유지연(2019).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특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26(4), 115-138.
- 유 희(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관계 : 가족품앗이 참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인선(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이 어머니-영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경(2021).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전업주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소진의 관계에서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민(202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증진을 위한 PATHS 기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영(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자(2009). **늦부모와 일반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자, 김용미(2007). 늦부모와 일반 부모의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 사회적 지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289-309.
- 이선영, 안선희(2016). 걸음마기 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1), 33-47.
- 이소영(2023).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17, 7-30.
- 이아름(202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중단적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예진, 윤수정(2018).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 취업상태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09, 79-101.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이윤석, 이태희(2019). 결혼과 출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자체경영의 당면과제와 일본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경영건설탐연구**, 19(4), 253-261.
- 이윤아(2020). 유아의 감각 처리 특성, 운동 능력, 언어 발달 및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5-85.
- 이윤주, 김진숙(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종하, 임상수(2023). 인구고령화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EU학연구**, 28(1), 125-143.
- 이진화(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와 행복감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5), 1051-1064.
- 이현미(2012).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 최승용, 송현우(2013).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 육아 효능감, 육아 행동, 자녀의 사회적 능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22(1), 69-81.
- 이혜수, 서주현(202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683-696.
- 이혜원(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 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 장경은(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0(1), 5-34.
- 이희진(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지원(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아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 임효진(2015).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과 유아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59-184.
- 임은정(2001). **이야기 듣고 다시 해보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주(2018).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1), 183-206.
- 장미해(2022).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의 표준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정미숙, 김준수(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 육아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3(3), 111-135.
- 정신자(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유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미(2022).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4), 181-186.
- 정지나(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5(6), 665-679.
- 정찬미(202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의 아동 공적 소득이전 정책의 방향. **사회과학논총**, 25, 147-165.
- 조미정, 최태산(2011). 아동의 놀이성 군(群)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연구. **인간발달연구**, 18(3), 37-51.
- 조준오, 나정(2016). 어머니의 정신건강 수준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375-398.
- 조혜주(2003). **고령출산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숙, 이석자, 박영숙(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5), 872-879.
- 주세은(2010).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민정(2023). **음악심리치료가 발달지연아동의 정서지능·사회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애착장애·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삼숙(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숙, 송순옥(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13-332.
- 최민정, 차미숙(2022).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6(1), 121-145.
- 최영준(2023).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 방향 중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포럼**, 75, 56-59.
- 최옥주(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6(3), 128-150.
- 최윤희, 문혁준(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윤희, 문혁준(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21-228.
- 최은아, 정계숙(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행복 의미 구성과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261-292.
- 최은영, 최지훈, 안선희(201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남편 양육참여의 조절효과.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6(4), 73-86.
- 최우수, 성영실(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1), 115-133.
- 최향준, 조수경(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8157-8164.
- 최혜원(2013). **고령 출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갈등 분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중규(2007). **고령 산모에 있어서 도플러 초음파의 유용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준아, 김지현, 조운주(2014).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8(4), 525-544.
- 한지현, 이영환, 김정희(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5), 603-615.
- 현인순(2018). **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예지, 이순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125.

홍혜진, 김경숙(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9(4), 197-217.

황지애, 김성재, 김규수(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어머니 됨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21(1), 297-318.

황지영(2003).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임상적 연구. **동국의학**, 10(2), 298-306.

여성가족부(202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세종: 여성가족부.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2023 세계인구보고서'.

이데일리(2022.02.23. 자료). 엄마 평균 출산연령 33.4세...아이 초등학교 보내면 마흔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9126632233472&mediaCodeNo=257\(2023.06.27](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9126632233472&mediaCodeNo=257(2023.06.27) 검색)

머니투데이(2023. 04. 22). "韓, 출산을 정책의 나쁜 사례"...유엔 인구보고서의 지적 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12434910650>

제민일보(2023). 제주도민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의식 조사.

제민일보(2023). 제주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시간이 부족하다.  
<http://www.jemin.com>.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www.http://jeju.childcare.go.kr](http://www.jeu.childcare.go.kr)

투뉴스(2023). 서울시, 난임 부부 지원 계획에 이은 저출생 대책 2탄...4년간 2,137억 원 투입, 2023.04.12. 신문기사. <http://www.seoultopnews.kr>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23). 인구조사 통계자료. 대전: 통계청.

통계청(2023). 인구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통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통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일보(2023. 03. 04), 점점 늦어지는 결혼과 첫 출산...유럽처럼 결국 출산율 회복될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BBC NEWS코리아(2022.09.26.). OECD: 한국 여성, 첫 출산 32세에... '사회적 인식 함께 개선돼야'. <https://www.bbc.com/korean/news-63032631> (2023. 06. 27 검색)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실(2022). **코로나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Anthony, L., Anthony B., Glanville, D., Naiman, D.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33-154.

Arnold, D. H., Kupersmidt, J. B., Voegler-Lee, M. E., & Marshall, N. A.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reschool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emergent academic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3), 376-386.

Attili, G. (1990). Successful and disconfirmed children in the peer group: Indices of social competence with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33*(4-5), 238-24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ooker, R. J., Davidson, R. J., & Goldsmith, H. H. (2016). Maternal negative affect during infancy is linked to disrupted patterns of diurnal cortisol and alpha asymmetry across contexts during childhoo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2*, 274-290.
- Burkimsher, M. (2015). Europe-wide fertility trends since the 1990s: Turning the corner from declining first birth rates. *Demographic Research*, *32*, 621-656.
-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
- Connell, A. M., & Goodman, S. H.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in fathers versus mothe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5), 746-773.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 Cowan, C. P., & Cowan, P. A. (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The big life change for couples*. basic books.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42 - 1050.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4*(2), 117-13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1), 45-59.
-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 Eisenberg, N. (2014).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PLE: Emotion)*. Psychology Press.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rankel, S. A., & Wise, M. J. (1982). A view of delayed parenting: Some implications of a new trend. *Psychiatry*, 45(3), 220-225.
- Frey, J. R., Elliott, S. N., & Gresham, F. M. (2011). Preschoolers' social skills: Advances in assessment for intervention using social behavior ratings. *School mental health*, 3(4), 179-190.
- Gjesfjeld, C. D., Greeno, C. G., Kim, K. H., & Anderson, C. M. (2010).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34(3), 135-143.
- Grime, D. A. & Gross, G. K. (1987). Pregnancy outcome in black woman aged 35 years and older primipara. *International Journal Obstetrics Gynecology*, 58, 614.
- Gross, G., & Galiana, F. D. (1987). Short-term load forecasting. *Proceedings of the IEEE*, 75(12), 1558-1573.
- Harendt, C., Kostelnik, J., Kugler, A., Lorenz, E., Saller, S., Schreivogel, A., ... & Burghartz, J. N. (2015). Hybrid Systems in Foil (HySiF) exploiting ultra-thin flexible chips. *Solid-State Electronics*, 113, 101-108.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3), 1-20.
- Hurley, J. J. (2003). Social validity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tervention target behaviors for pre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and administr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USA.
- Jaccard, J., Wan, C. K., & Turrisi, R. (1990). The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ntinuous variables in multiple regress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4), 467-478.
- Johnson, C., Ironsmith, M., Snow, C. W., & Poteat, G. M. (2000). Peer acceptance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7(4), 207-212.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2009).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공역). 서울: 교문사.
- Lam, C. B., Tam, C., Chung, K. K. H., & Li, X. (2018). The link between coparenting cooperat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negative affe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5), 692.
- Lim, H. J. (2019). A study on effects of mothers' parental competence, mothers' parental anxiety, child's self-esteem, and child's happiness on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133-156.
- McClellan, E., & Katz, L. (2001). *Assessing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ampaign, IL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50953), ERIC.
- McClelland, M. M., & Morrison, F. J. (2003). The emergence of

-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2), 206-224.
- Mendez, J. L., Fantuzzo, J., & Cicchetti, D. (2002).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4), 1085-1100.
- Merrell, J. W. (2001).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J: Erlbaum Associates.
- Merrell, K. W. (2001). Assessment of children's social skills: Recent developments, best practices, and new directions. *Exceptionality*, 9(1-2), 3-18.
- Mills, R. S.,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1), 138-151.
- Odom, S. L., McConnell, S. R., & Brown, W. H. (2008).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influences*. In W. H. Brown, S. L. Odom, & S. R. McConnell(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Risk, disability, and intervention* (pp. 3-29). Towsou, WA: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3(1), 29-44.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Roosa, M. W. (1988). The effect of age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re delayed childbearers a unique group?. *Family Relations*, 322-327.
- Rose Krasnor, L. (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1), 111-135.
- Rubin, K. H. (1995).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symposium recent perspectives on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some introductory remarks. *Development*, 54, 1383-1385
- Shim, S. Y., & Lim, S. A. (2018). The influence of preschool teachers' happiness

- and self-efficac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 Early Childhood Edu Res*, 38(1), 319-339.
- Simoni, M. K., Mu, L., & Collins, S. C. (2017). Women's career priority i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s family planning and ethical acceptance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Human Reproduction*, 32(10), 2069-2075.
- Sinai, D., & Tikotzky, L. (2012). Infant sleep, parental sleep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mothers on maternity leave and in families of working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2), 179-186.
- Whittaker, J., Harden, B., See, H., Meisch, A., & Westbrook, T. (2011). Family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Pathways to early head start toddlers' social-emotional function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 74-86.
- Woo, S. K. (2013). How mother's playfulness, young children's sex, and playfulness affect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4), 263-283.

##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고령 출산모와 일반 출산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어머님께서 문항을 읽어보신 후 경험한 바를 기록해주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후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의 e-mail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석사과정 : 양 유 순

e-mail : smile1128@hanmail.net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고지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술적 목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응답 자료의 통계분석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응답자 성명, 성별, 전화번호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동의     동의안함

○ 설문조사가 끝난 후 응답자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임.

## I. 일반적 사항

|   |                       |  |
|---|-----------------------|--|
| ※ 다음은 유아와 어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1   | 어머니의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
| 2   | 어머니의 학력               | ① 고졸미만    ② 2년제 대졸    ③ 4년대졸    ④ 대학원졸    ⑤기타  |
| 3   | 어머니의<br>첫 자녀 출산시기     | ① 20~35세 미만    ② 35세 이상  |
| 4   | 어머니의 직장생활<br>(자영업) 경력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7년<br>④ 7-10년                      ⑤ 10년 이상 |
| 5   | 어머니의 직업               | ① 전업주부                      ② 전일제 취업                      ③ 시간제 취업                                       |
| 6   | 자녀의 성별                | ① 남아의 수 (    )    ② 여아의 수 (    )   |

## II.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

1. 다음의 질문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각각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10점 척도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어려움)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현재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 - 10점으로 점수화할 때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 5세가 넘는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키우면서 느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수준을 찾아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째름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 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21 |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나는 나 자신이 비교적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 우리 아이의 수면습관과 식사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중지시킬 때 생각보다 수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깨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을 한다. 1점.(1~3개) 2점.(4~5개) 3점.(6~7개) 4점.(8~9개) 5점.(10이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36 | 우리 아이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Ⅲ.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질문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각각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10점 척도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사회적 유능성)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 유능성이란 유아가 속한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함.

귀하는 현재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 - 10점으로 점수화할 때 몇 점으로 생각하든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 5세가 넘는 자녀에 대해서 만 5세까지 키우면서 느낀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수준을 찾아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잘 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친구를 잘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친구들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친구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친구들을 잘 이끌어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친구들에게 협조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8  |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사소한 일에도 잘 싸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필요하다면 친구들에게 양보도 하면서 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친구들의 짝으로 선택될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친구들과 서로 다투지 않고 대화를 지속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무슨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백하게 표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 신경질을 부리며 짜증 낼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다른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이기적인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infants impact on social competence: The Effect of Mother's Childbirth Age Control

Yang, Yus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Currently, in Korea, the population decline continues due to low birth rates as women expand their social advancement, individualism, and marriage age are gradually delayed.

The purpose of this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reflecting the current era in which elderly births

are gradually increasing.

Research problem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Mother's parenting stress will affect infants' social competence Is it?

Research Question 2. Is there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randomly sampled 300 people by classifying the study subjects as aged 35 or older and general childbirth under 35 based on the first childbirth age of mothers who have raised children in Jeju Island.

For data collection, 300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2, 2023 to April 5, 2023 (15th) through an online survey company. In addi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18.0 to analyze demographic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mother's first birth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infant's social competence, and the first childbirth age show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ocial compete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irst birth age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social compete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unseling program with the help of the family so that the mother does not experience excessive stres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need for support policies through various education and counseling to

reduce stress and improve the social competence of infants for mothers of elderly births.

Key words: parenting stress, social competence, and childbirth in old age